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녹두장군의 전담 호위가 되었습니다		

17화 : 붉은 댕기 휘날리며, 황룡촌의 녀이 되리

새벽별이 떠올랐을 무렵, 현세는 제법 선선해진 공기를 마시려 바깥으로 나왔다.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이곳 장성에서 격전이 벌어질 수순이었다.

그다지 긴장감은 들지 않았다. 간절함이 사라진 가슴에는 불에 델 듯 뜨거운 복수심만이 빠듯하게 차지하고 있었다.

현세는 이제 버릇이라도 된 양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그곳은 어때. 토르는 만나봤냐? 내가 아는 토르는 너처럼 귀여운 멍멍인데, 말이 야...”

흐려지는 말끝에 슝슝한 물빛이 배어나왔다. 그맘때의 현중이 떠올라, 더 그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애정을 쏟아준 조그만 녀석의 잔상은 까맣게 어둠이 뒤덮일 때마다 현세를 옥죄었다.

어디 그뿐인가. 여태껏 품에서 꺼내보지도 못한 붉은 댕기는 이미 현세의 체온을 머금어 살아 숨 쉬는 것처럼 따스했다.

‘연희씨...’

그는 차마 연희에게 말을 건네지 못했다. 미안한 감정과 안타까움이 한데 뭉쳐져 평생 지워지지 않는 피멍으로 자리 잡은 느낌이었다.

현세의 가슴이 가파르게 오르내렸다. 붓물처럼 터져 나오는 울음을 견뎌보려 부단히도 억눌러 보았다. 어찌나 이를 악물었던지 잇새로 짹짹한 피 맛이 다 느껴졌다.

“현세야.”

밤공기 사이로 스며든 목소리에서 부드럽지만 강인함이 느껴졌다. 현세의 시야를 덮는 까만 그림자 위로 푸른 달빛이 요요한 빛을 냈다.

현세는 핏발이 불거진 눈을 들어 올리며 목소리의 주인을 응시했다.

“접주님...”

“이제 봉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는거?”

봉준의 주름진 눈가가 따사롭게 휘어졌다.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매일 밤 달이 중천으로 떠오를 때면, 잠을 이루지 못한 현세가 바깥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한 줄짜리 질문을 던졌을 뿐인데도 현세는 파도 앞 모래성처럼 속절없이 무너졌다.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았다.

“혀, 형! ...봉 형!”

현세의 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꺾꺾 담아두었던 울분이 한순간에 터져 나와 흠바닥에 짙은 물 자국을 냈다. 그는 마치 자식을 잃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견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스스로 감당이 되지 않아 그냥 외면했을 뿐, 그의 시간은 불타버린 무장의 집터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봉준은 그런 현세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냥 울어라. 뭐더러 참어. 눈물 나면 울고, 썩이 나쁜 화를 내. 뭐더러 참고 앉았냐.”

다독이는 봉준의 손길이 뜨거우리만치 따스했다. 언제나 느끼는 거였지만 책을 잡았던 쟁기를 잡았던, 상대방이 주는 온기는 잘난 출신과는 별개였다. 현세는 담아둔 멍에를 꺼내들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 나는 쓰레기예요! 마지막 가는 길에 배웅도 하지 않았어...”

현세는 봉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끼며 어깨를 떨었다. 눈물콧물이 제 백의를 적시는 동안에도 봉준은 말없이 현세의 뒤통수를 쓰다듬어 주었다. 청량한 밤하늘을 비웃기라도 하듯 까만 달무리가 푸른빛을 가리기 시작했다. 봉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했다.

“비님이 오려나 보구먼.”

다 큰 사내의 울음이 지면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잠겨들기 시작했다. 저 위에서도 슬픔을 달랠 길이 없는지,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내며 차가운 빗물을 쉴 새 없이 뿌려댔다.

봉준은 우산이라도 된 듯 현세의 머리위로 손차양을 만들며 말했다.

“마지막이 어딴냐... 일이 바빠서 먼저 간 것뿐이여. 우린 어차피 다 같은 하늘에서 다시 만날 거구먼.”

완벽한 사망 플래그였다. 저런 소리는 등장인물이 죽기 직전의 회차에서 언급하는 전형적인 레퍼토리였다. 그럼에도 현세는 그것을 부정하지 못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봉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쪽 무릎을 꿇고 주저앉은 현세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안 그래도 빛바랜 백의가 누런 황토로 얼룩덜룩해졌다.

“동학군이 꿈꾸는 그런 세상은 우덜 세대에서 이루지 못할 지도 모르제. 그래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는 다르지 않겠어?”

현세의 눈동자가 씻어낸 듯 제 빛을 찾기 시작했다.

정말 그랬다. 선조들의 유구한 역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동학군의 행보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었다.

‘나비효과처럼 말이지.’

현세는 확신했다. 공기처럼 당연히 여겨온 자유라는 것의 이면에 이들의 넋이 깃들었음이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이제야 제가 아는 현세로 돌아왔음을 직감한 봉준은 수묵화처럼 은은하게 미소지으며 물었다.

“호남창의군의 선봉을 맡고 싶다고 했는지?”

“안 됩니까? 조총부대는 말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조치 해두었습니다.”

지금의 현세는 차분히 저격을 할 상태가 아니었다. 당장에라도 칼을 뽑아들고 춤을 추어도 모자랄 지경에 다다른 것이나 다름없었다.

봉준은 결의에 찬 현세를 굳이 말리고 싶지 않았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는가.

“네 뜻대로 혀.”

현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심호흡을 했다. 봄비에 젖은 몸이 차갑게 식어 가는데도 어쩐지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꼭 연희를 바라보던 그날의 밤 같았다.

“봉 형, 제가 얼마나 활약할지 지켜보거나 해요. 인간병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랄한다. 죽이나 말어.”

봉준의 미소는 정말이지 저녁노을을 닮아있었다. 현세는 한낮의 햇살보다 더 눈부신 그의 미소를 바라보며 저도 입매를 추어올렸다. 어쩐지 얼굴 근육이 땡땡하게 경직되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웃는 것이 어색할 만큼 괴로운 시간을 견디기는 한 모양이었다.

봉준은 빗물에 흠뻑 젖은 현세의 머리칼을 툭툭 털어대며 말했다.

“네 고집을 누가 말리겠어.”

격전의 날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새벽 내도록 내린 비가 무색할 만큼 아침햇살은 눈살을 찌푸려야 할 정도로 선명했다.

현세가 지휘하던 조총부대는 가장 뛰어난 명중력을 보이던 농민군이 대장을 맡았으며, 개남과 화중의 죽창부대는 학익진의 양 날개를, 중심은 호남창의군을 이끄는 봉준이 도맡았다.

죽은 사람처럼 생기가 없던 현세가 어쩐 일로 개남의 곁으로 다가가 선뜻 말을 붙였다.

“개남 형님. 저게 바로 그 방어용 무기입니까? 대박.”

개남은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는 현세를 보며 아연했다. 오늘은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형님 소리까지 내뱉는 현세가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는 괄괄한 음성으로 친히 방어용 무기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아따, 너는 농민 자식이면서 저것도 모르고... 장태잖여, 이 무식한 놈아. 뽕아리 기르는 둥지 몰려?”

알 턱이 있나. 현세가 아는 병아리라고는 초등학교 하굣길에 팔던 노랑고 시끄러운 털 뭉치가 전부였다. 그마저도 관심이 없어 그냥 지나치기 일쑤였더랬다.

개남은 그런 현세를 한심한 종자 보듯 하며 혀를 끌끌 찼다.

“쫓! 네 놈 대가리는 언제 제대로 돌아온대? 자, 봐! 안에 짚을 잔뜩 넣어두었지? 이

정도 크기면 총을 쏘든 칼을 꼽든 끄떡없다니께!?”

정말 그랬다. 죽부인의 대형화 버전을 한 것 같은 이 거대한 장태라는 높은 장정 대 여섯은 둘러붙어야 할 만큼 무지막지했다. 거기다 얼핏 봐도 개수가 열 개는 넘어보였다. 현세가 간절히 원했던 탱크와는 수지가 맞지 않았지만, 이정도면 어느 정도 방패막이는 되어 줄 듯했다.

현세는 대나무를 이어붙인 걸면을 탁탁 쳐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 아이디어예요? 개남이 형?”

“아이는 뭇 험다고 찾아? 이상한 소리 내뱉는 거 보니 정신이 쪼까 들긴 들었나벼?”

현세는 픽 웃으며 대답했다.

“봉 형 생각이구나. 좋은 방법이 있다더니, 이거였네요?”

“영준이 가가 보기와는 다르게 대가리가 좋아. 그러니까 너 같은 고집불통헌티 글도...”

개남은 말을 하다말고 애꿎은 장태를 발로 찼다. 현세는 그런 개남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고집불통, 뭐요?”

“아, 아녀! 너, 요번에 호남창의군 선봉대를 맡았다면서? 잘 만지는 총 쪼가리는 뭐에 쓰고 밑에서 고생허냐?”

“제가 정말 잘하는 건 이곳에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으로 잘하는 걸 해보려고요.”

현세의 주특기는 고공침투였다. 부력을 양껏 받으며 구름을 가로지를 때면 느낄 수 있는 자유로움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전시작전 수행 중에도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기염을 토해냈었다.

그러나 이곳은 찐 조선이었다. 헬기나 비행기는 취급하지 않는, 국지전의 장이 열리는 곳!

현세는 몸을 써서 적진을 밟아주기로 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부색을 가진 처지에 적진이라는 말은 약간 우스웠지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이번 전투도 어쩐지 예감이 좋았다. 지난 황토현 때보다는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각이었지만 이쪽에서도 나름 비벼 볼 만했다. 저쪽에서도 위대한신 이순신 장군이

친히 지도했던 병법을 동원할 거라고는 예상치 못할 테니까. 게다가...

‘병아리 등지도 힘을 보태주고.’

동학군을 과소평가한 관군은 장성을 진격하기위해 기를 쓰고 남하 중이었다. 그러나 동학군은 미리 삼봉에 진을 치고 그들의 진격 루트를 미리 파악해 둔 뒤였다. 확실히 병법에서도 뒤쳐지지 않는 봉준의 실력으로 그들은 유인작전에 쉽게 걸려들게 되었다.

전운이 흐르는 가운데, 심영 (沁營 : 조선 시대에, 바다의 방위를 맡은 군영. 고종 24년(1887)에 진무영을 고친 것으로 강화도에 본영을 둬)병력 300이 치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규 훈련을 받은 정예군으로, 레밍턴 롤링블럭 소총과 회선포를 갖추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소식은 곧 봉준의 귀에까지 닿았다.

“대장! 저쪽 우두머리 이학승이라는 놈이 서신을 보내왔어라! 이것 좀 보시요!”

“서신?”

봉준은 거침없이 서신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꺼냈다. 안에 적힌 글귀를 읽어 내려가는 봉준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농민군의 수장은 들으라.

조정은 물론, 우리 경군 또한 무의미한 접전은 없었으면 하는 바, 총 칼을 앞세우기 전에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만약 그대들이 조정의 뜻을 이어받아, 자진 해산을 한다면 큰 죄를 묻지 않겠노라.」

“지랄허네!”

봉준은 서신을 꾸깃거리며 바닥으로 팽개쳤다. 또 무슨 수를 쓰려는 건지 몰라도 예감이 좋지 않았다.

보다 못한 개남이 입을 열었다.

“영준이 너, 답신 보낼 것이여? 이리 모인 게 수천 명인디 어찌 자진 해산을 요구한단 말이여? 승리가 코앞인디!”

“개남 성님 말씀이 옳소! 우덜이 어찌 뭉쳤는디! 죽은 아가들을 떠올려 보시오!”

각 부대를 책임지는 부장들도 나서서 한마디씩 거들었다. 이렇게 뿔뿔하게 뭉친 농

민군을 갑작스레 해산시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봉준은 손등의 푸른 핏줄이 불거지다 못해 튀어나올 만큼 주먹을 짹 말아 쥐며 소리쳤다.

“우리는 오늘 승리하기 위해 뭉쳤구먼! 이깃 종이 쪼가리로 우리를 어찌 해보려는 것 같은디, 어림없는 소리지! 화중아! 시방 우리 농민군은 어찌고 있어?”

“장터랑 황룡강 근처에서 식사 중이오.”

봉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가 아는 관군이라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노인이며 어린아이까지 닥치지 않고 죽이는 판국에 거짓 서신하나쯤 일도 아닐 터였다. 봉준은 새된 음성으로 다급하게 외쳤다.

“어여 빨리 전투준비 하라고 혀! 시간이 없어!”

무척 긴박한 분위기 속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대장! 큰일 났소! 시방 관군이 포를 쏘기 시작했구먼!”

봉준은 이를 뿌득 갈았다. 비겁한 종자들! 답을 이미 정해놓고 이깃 거짓부렁으로 함정을 파려 해? 건딜 수 있는 분노는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뒤였다.

“이런 쳐 죽일 관군 놈들!”

“봉 형.”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 지켜보던 현세는 봉준의 옷깃을 단호하게 잡아당겼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현세의 눈동자에 붉게 달아오른 봉준의 얼굴이 비쳤다. 들끓던 노호가 조금씩 사위어지는 것도 그때였다.

“현세야...”

현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대신했다. 흥분은 금물이었다. 저 역시 냉정을 잃고 자신을 망가뜨려 본 자로써, 그냥 이대로 봉준을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침착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갑시다. 봉 형의 전담 호위가 지켜드리겠나이다.”

“...그래, 가자!”

들은바와 같이, 황룡촌 일대는 심영병이 쏘아대는 크루프 야포로 온통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체력을 비축하려 한 술 뜨던 밥그릇은 온통 엉망이 되어 자취를 감추었다.

뭐, 대단한 식사도 아니었다. 간장 종지에 기름을 부어 찍어먹는, 아주 조촐하고 볼품없는 점심이었다. 그마저도 허락지 않는지, 그들은 한 줌의 먼지가 되어버렸다. 그 비참한 풍경 속에서 바람에 나풀대는 백색 머리끈만이 허망하게 휘날리고 있었다. 봉준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명을 내렸다.

“학익진을 펴라.”

“예! 대장!”

명이 떨어짐과 동시에 농민군이 3갈래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농민군은 군으로써 정식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야멸찬 관군의 행태에 오장육부가 뒤틀린 직후였다. 그들은 무차별적으로 쏘아지는 포를 피해 우선적으로 고지를 점령하고 나섰다. 황토현의 교훈을 발판삼아, 지형지물을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만발의 준비는 끝났다.

“가자, 현세야!”

현세는 죽창을 높이 들어 올리며 목이 찢어져라 외쳤다.

“동학농민군! 진격하라!”

백색 띠를 두른 농민군과는 달리, 현세의 이마에는 붉은 끈이 메어져 있었다. 흩날리는 머리칼을 빈틈없이 올려 묶은 모습에서 확고한 의지가 엿보였다.